



해외농약뉴스

EU-터키, 관세협정 체결

유럽연합(EU)과 터키가 관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터키는 EU내에서 시행중인 특허등록법을 채택하게 된다. 관세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현재 1995년 말로 예정) 이 등록안은 채택될 예정이다.

터키는 부속서 8(Annex 8)에 수록된 EU의 모든 지적, 산업적 재산권을 채택하여 준수하기로 동의했으며 농약제품과 그 생산공정을 포함한 모든 신 개발품의 특허를 허용하는 국내 등록법을 제정할 것이지만 초기에는 의약품, 동물약품 및 그 공정은 제외될 것이다. 입법화는 적어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규정을 충족시키는 의무적 자격에 대한 규칙과 서류준비 기간부터 2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저작권과 기타관련 등록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Annex 8에는 협정효력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터키가 GATT의 TRIPS 규정을 이행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과 새로운 식물종 보호에 대한 UPOV협정같은 국제적 협정에도 접근하게 될 것이다.

1996년 1월 1일까지 면제될 모든 관세 및 터키가 EU와 맺은 특혜관세협정을 시행하는데는 5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 농업제품은 초기에 이러한 규정에서 배제될 것이지만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을 터키가 채택할 것이다.

EC는 터키가 협정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올 9월에 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터키가 성실히 이행치 않으면 EC는 협정을 취소할 지도 모른다. 이 동의서는 금년 8월 EC에 상정되어 승인받게 된다.

영국, 상표협정안 비준

영국은 3월 6일 상표의 국제적 등록에 대한 마드리

드협정의 의정서에 비준했다. 이것은 지난 1994년 9월 상표법의 통과에 이은 것이며 이 의정서에는 또한 스페인, 스웨덴도 비준했으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1개 국가의 비준을 더 필요로 한다.

마드리드 협정을 관장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 의정서가 1996년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등록 체계는 특허물질의 상표를 보호하게 되며 영국은 법적비용에서 연간 2천 4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농약등록 일원화 시도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에서는 농약등록의 절차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4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2가지 일련의 일원화계획이 진행중인데 하나는 가뭄에 대처한 국가들간 위원회(Cilss)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국가간 농약의 조화(HIP)계획이다. Cilss 회원국은 세네갈 등 9개국이고 HIP 회원국은 가나, 기니아 등 5개국이다.

HIP 계획은 프랑스와 독일정부가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의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등록절차를 일원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아직 여러국가에서 관련당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1994년 12월 세계농약공업연맹(GIFAP)과 Cilss 회원국 사이에 토론이 있었으며 1996년에 비준될 것으로 전망된다. GIFAP의 아프리카위원회와 Cilss의 대표자들 사이의 첫번째 실무회의가 올해 4월말 말리에서 개최되었고 GIFAP은 여기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현재의 문제는 불법적 수입과 제한사용 규정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호주, 농약등록 중앙정부서 관장

호주는 올 3월 15일 그동안 주정부에서 관장해 온



해외농약뉴스

● 메 이 저 동 향 ●

● Rhone Poulenc... '94년 매출신장

롱프랑 그룹의 '94년도 전체 매출실적 및 경상이익이 '93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농약분야의 사업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농약부문의 '94년도 매출액은 100억 프랑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나 경상이익은 약 7억 프랑으로 40%나 증가했다. 이는 원재료 구입가격의 개선, 생산비 절감대책 및 제품구성의 충실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살충제인 Regent(Fipronil)를 브라질에서 사탕수수용으로 등록했다. 브라질에서는 흰개미와 같은 토양해충이 사탕수수 농장에 큰 피해를 주어 매년 약 10억 프랑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농약사업부는 Regent의 출하로 5~6천만 프랑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올 1/4분기의 실적 역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1.9% 증가한 29억 프랑이고 수량도 16.6%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의 수요회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중남미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며 경상이익도 5억7천4백만 프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67% 증가되었다.

● Reilly... 중국에 피리딘 공급

미국의 레일리社は 영국의 제네카가 중국에 추진중인

파라콧트 생산공장에 그 중간체인 피리딘을 공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은 중국정부로부터 곧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공장은 '97년경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레일리社は 오랫동안 제네카에 피리딘을 공급해온 세계에서 가장 큰 피리딘 공급업체이며 향후 중국에 24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 FMC... 중국에 합작공장 설립

FMC는 중국에서 농약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Jiangsu화학회사와 합작공장을 설립했다.

첫번째 계획은 중국에 최신의 유제공장을 설립하는 것이고 두번째 계획은 1개 이상의 FMC 특허물질들을 중국에서 통합생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유통될 첫번째 FMC 제품은 합성피레스로이드계 몇종과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인 카보설판이다. FMC의 제초제 크로마존은 '94년에 판매가 증가되었고 '97~'98년 FMC의 신규제초제인 설펜트라존과 F-8426(카펜트라존에틸)이 도입될 때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MC는 광엽잡초용 발아전처리제인 설펜트라존을 '96년까지 미국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등에는 '97년에 등록할 예정이다.

농약등록 업무를 중앙정부로 일원화시키는 국가적 농약등록계획의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적 등록계획의 도입은 결국 등록한 농약제품에 대한 책임성이 주정부에서 중앙정부등록청(NRA)으로 이관됨을 의미한다.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NRA는 농약의 평가, 등록, 수입, 제조 및 수출에 관한 규제등의 시행규정과 관련된 7가지 법을 관장하게 되며 이와같은 등록계획 하에서 모든 등록은 매년 7월 1일에 갱신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만큼은 7월 1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고 이미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등록일까지 NRA가 자동처리하게 된다. 이 계획의 시행으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던 제품들도(예로 퀴스랜드 주의 가정원예용 농약) 가능한 빨리 NR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계획의 시행은 실험실적 또는 긴급상황에서 미등록 농약의 사용과 미등록 소규모 농약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이며 이 계획의 도입 이전에는 각 주마다 등록 규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NRA는 올해 소규모농약의 사용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 지원을 위한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새 등록계획은 복제품 제조업자들이 그들 제품을 계속 등록하려면 원자료 작성회사에게 일종의 자료 이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등록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베트남 농약시장 개방

베트남이 농약구입의 분산화를 시작하자 특히 일본 회사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벼 재배면적이 6백만 ha로 일본의 거의 3배에 이른다. 따라서 일본회사들은 이를 절호의 판매 기회로 보고있다. 주요 수출회사와 약제로는 다케다케 미칼의 파단(칼타)과 발리다신(발리다마이신), 일본농약의 아플라우드(부프로페진), 미쯔이도하츠의 트레본(에토펜프록스), 닛산케미칼의 시리어스(피라조선펜론 에칠)로서 니찌멘, 이도쭈상사 등의 무역회사를 통하고 있다.

베트남 농약시장은 3천5백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작물은 쌀이며 과실, 채소 등에도 농약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농약생산을 위한 투자계획

중국정부개발은행(S.D. Bank)은 올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로 1994년 보다 25% 증가한 8억 3천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금의 대략 61%는 농약과 비료 생산에 사용될 예정인데 농약과 비료의 심각한 부족이 결국 급격한 가격상승을 불러일으켜 농약은 2월말에 11.5%나 가격이 상승했다.

농약의 공급수준은 1994년의 94%에 비해 89%의 수요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정보**

과학칼럼

환경파괴와 ppm

현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우리에게 환경파괴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투철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환경과 관련되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과학용어로는 「ppm」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백만분의 1」을 뜻하는 ppm은 화학에서 아주 작은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1kg의 시료중에 1mg(1천분의 1g)의 불순물이 들어 있으면 그 농도를 1ppm이라고 한다.

이렇게 작은 농도의 측정은 커다란 식빵 덩어리에 작은 모래 한알이 섞인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정확한 측정기가 필요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현대의 화학분석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농도의 한계가 대략 0.001ppm정도라는 점에서도 ppm의 측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측정된 숫자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허용 한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는 독성 물질의 「농도」가 아니라 섭취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절대량」이 문제가 된다.

인체에 독성이 있는 메탄올이나 중금속이 몇 ppm 들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과 같이 섭취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李惠煥/서강대 교수·화학, 경향신문 5월27일)